

쌀 생산 6년째 80만다...양파 전체의 절반

호남통계청 '광주·전남 주요 농산물 생산 변화' 조사

마늘 지난해 6만6천t 생산...10년 전보다 54% ↓ 가을배추·감·배·마늘 전국 생산 비중 20~30%대

2000년도 들어 꾸준히 줄어왔던 광주·전남지역 쌀 생산량이 2010년 이후 80만t 생산량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급격히 감소하던 보리쌀 생산량도 2010년 이후 3만t대 생산량을 이어가고 있다.

29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광주·전남지역의 주요 농산물 생산 변화'에 따르면 지난해 이 지역 쌀 생산량은 89만 3000t이다. 이는 전국 생산량의 20.6% 규모다.

광주·전남 쌀 생산량은 2000년 109만t까지 증가했지만 이후 계속 하락했다. 2010년에는 87만5000t까지 낮아졌지만 이후 80만t대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다.

1980년 32만8000t에 달했던 이 지역 보리쌀 생산량도 2010년 3만1000t까지 큰 폭으로 감소한 뒤 3만t대 생산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생산량은 3만2000t이다.

마늘의 경우 지난해 생산량은 6만6000t으로 10년 전보다 54% 감소했다. 전국에서 차지하는 이 지역 마늘 생산량 비중도

39.2%에서 24.9%로 낮아졌다. 지난해 이 지역 양파 생산량은 54만 9000t으로 10년 전보다 4.9% 증가했다. 하지만 전국 대비 비중은 51.2%에서 50.2%로 다소 떨어졌다.

건고추의 경우 생산량은 1만8000t에서 1만7000t으로 감소했지만 전국 비중은 17.4%에서 18.1%로 높아졌다.

가을배추의 생산량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10년 전 27만5000t이던 이 지역 가을배추 생산량은 지난해 42만t으로 124% 늘어났다. 전국 대비 생산량 비중 역시 16.8%에서 29.3%로 15% 가량 높아졌다.

과실류인 배의 경우 2008년 12만8000t까지 생산량이 증가했지만 이후 지속해서 하락했다. 2010년 8만6000t으로 낮아졌고

2012년에는 2만7000t까지 떨어졌다. 이후 다시 늘어나 지난해에는 8만6천t까지 생산량이 증가했다. 전국 대비 생산량 비중은 33.2%이다.

사과는 지난해 생산량이 5000t으로 10년 전보다 20.6% 증가했지만 전국 대비 생산량 비중은 1.2%에서 0.9%로 낮아졌다.

단감 생산량은 지난해 4만t으로 10년 전보다 29.5% 감소했으며 전국 대비 생산량 비중도 24.3%에서 23.3%로 하락했다.

호남통계청 관계자는 "작물 생산량의 경우 풍수해 등의 피해를 보면 생산량이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장기간의 생산량 추이를 살펴보면 작물 생산량 예측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상의 외국공무원 지역기업과 맺어주기

광주상공회의소는 29일 광주지역 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위해 광주시, 전남대 경영전문대학원 등과 공동으로 '외국공무원-지역기업 맺어주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상의 이날 오전 광주상의 회의실에서 '외국공무원-광주기업 맺어주기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공무원 17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공무원들은 전 세계 15개국 출신으로, 지난 2015년 8월부터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MBA 과정에 참여한 외국인들이다.

외국공무원들은 다음달 19일부터 광주 지역 기업 14개사를 방문해 지역 수출업체의 해외관로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삼성, 모니터도 퀀텀닷 디스플레이 적용 삼성전자가 내달 2일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IFA 2016에서 퀀텀닷 커브드 모니터 3종을 공개하며 퀀텀닷 디스플레이 기술 확산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24형과 27형 CFG70, 34형 CF791 등 퀀텀닷 커브드 모니터 3종을 공개한다. 삼성전자가 TV에 적용중인 퀀텀닷 디스플레이 기술을 모니터에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 제공>

전남 지자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외면

원·하도급 불공정행위 차단...올해 36건 뿐

구례·담양 등 8개 군 도입 7년간 실적 全無

전남 지역 상당수 시·군이 지난 2010년 하도급 불공정행위 등을 없애기 위해 도입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회장 정중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0년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행위를 제거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과 종합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계약하는 방식의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를 도입했다.

올해 들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건수는 35건(424억원)이며, 지난 2010년 6건(218억원)에서 2012년 18건(312억원), 2014년 24건(617억원), 2015년 55건(882억원) 등으로 늘고 있다.

올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물량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순천시로 7건(88억원)이었으며 그 다음이 나주시 6건(55억원), 여주시 6건(54억원), 광양시 2건(26억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는 전체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는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전담해 직접시공하는 방식이다. 적용범위는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모든 건설공사다.

특히 제도가 도입된 2010년 이후 단 1건도 발주하지 않은 시·군도 구례·담양·무안·신안·영암·완도·진도·해남 등 8개 군에 달했다. 한편 전문과 종합건설업체간 영업범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중소 전문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제도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12년 이후 2년 동안 소규모복합으로 발주된 공사는 총 357건으로 전체 52만 290건의 0.07%, 금액으로는 262억8000만원(전체 14조20097억원의 0.1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대성기자bigkim@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32.35 (-5.15)	↑ 금리 (국고채 3년) 1.27% (+0.03)
↓ 코스닥 663.58 (-16.85)	↑ 환율 (USD) 1125.00원 (+11.30)

한전, 아파트도 전기요금 분납 허용

7~9월 10만원 이상시 50% 선납 후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던 아파트 거주 개별 세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29일 밝혔다.

한전은 올해 여름 이상고온으로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7~9월 요금이 10만원 이상이거나 6월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경우 분납대상월 요금의 50%를 납부하면 나머지 금액은 3개월로 나눠 낼 수 있는 분납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단독주택과 개별 세대에 한전이 직접 요금을 청구하는 일부 아파트(163만가구)에만 적용됐다는 것

이다. 대다수 아파트는 한전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계약을 맺고 있어 가구마다 별도로 할인하는 것이 어려워 제외됐다.

그러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자 한전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세대별 분납 수요를 파악해 오는 9월 5일 납기일(실제 사용 기간 7월 15일~8월 14일)부터 아파트 세대도 분납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분납을 원하는 세대가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관리사무소는 세대별 수요를 파악해 납기일 전까지 분납여부를 한전에 통보하면 된다. /최재호기자 lion@

하반기 호남권 주택 가격 하락 전망

미분양 증가·대출규제 여파

올 상반기 호남권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폭이 둔화하고 매매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인데 이어 하반기 주택시장도 미분양주택 증가, 대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에 비해 다소 둔화할 전망이다.

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 29일 발표한 '2016년 7~8월 호남권 경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호남권 주택가격은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상반기중 광주의 주택매매가격은 0.2%, 전세가격은 0.4% 상승했지만 지난

2015년 하반기(매매 2.5%, 전세 1.9%)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둔화했다.

호남권 전 지역의 주택매매 거래량은 여전히 침체된 상태인 시흥,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감소하고 있다.

이 지역 주택시장 전문가들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하반기 호남권 주택시장은 상반기에 비해 다소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은 미분양주택 증가, 대출규제 등으로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고 주택거래는 공급량 증가, 주택경기 둔화 등으로 임대를 제외하고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기아차 부분파업 돌입

기본급 인상 등 이견 임단협 이견...다음달 2일까지

민주노총 전국급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 지부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회사 측과 합의를 보지 못하고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29일 기아차 노조 광주지회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6일 2개조(광주공장 조합원 7300여명)가 4시간씩 총 8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인것을 비롯해 오는 9월2일까지 파업을 이어간다. 일별 파업 시간은 30일·31일 4시간, 9월1일 조별 2시간, 2일 4시간이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25일 경기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10차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15만2050원 인상 ▲2015년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단체협약 개정 요구 ▲임금피크제 적용 시 일자리 창출안 제시 등을 제시했다.

추가 교섭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번 주 집중 교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대성기자bigkim@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동림동 프리미엄시대를 알리는 **광신프로그레스**를 지금 만나보십시오

광신프로그레스
GwangShin Apartment

광주가 꿈꿨던 퍼스트클래스 라이프
76㎡, 82㎡, 84㎡ 총 234세대

계약금 5% 정액제	발코니확장 무료시공
중도금 무이자	전세대 알파공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문의 062-511-1141

광주·전남 기능장1호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타운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